열 마디 백 마디 좋은 말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1면에서 계속

숙명통 타심통 천이통 천안통 또 신족통, 이 다섯 가지를 지금 현대의 말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컴퓨터 탐지기 또는 팩스, 무전통신기, 천체망원경 이 다섯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통을 바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들이고 내는 데에 역점을 두는.

그러면 요 컴퓨터 숙명통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까 내가 그거 말하다 마치지 못했죠? 그 무수히 나오는 게, 과거에 짊어지고 있던 것이 입력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오신통 가운데에 숙명통이라는 게 컴퓨터인데 과거의 모든 것이 거기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공' 하는 건 천체를 보고, 한 시스템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나오는 거를 다시 주인공에다 맡겨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아프게 한 거니까 거기서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나오는 구멍에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서 입력된 것이, 팔자 운명이 다 무너지고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업보가 무너지고 화산지옥이 무너지고 화탕지옥이 무너지고, 모두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카세트에 넣었다가 거기 또 노래를 넣으니까 앞서 노래한 것이 지워지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이해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는 데는 이해가 가야만 되겠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의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때를 맞춰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놔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놓을 때에 앞서 입력됐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새로 입력을 해 넣으니까 새로 새살림하듯이 내 머리가 개운하게 맑아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10억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뒤범벅이 돼서 끊지 않고 순서껏 돌아가면서 잔잔하게 물이 흐르듯이 돌아가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며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며…,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자 내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 돈도 달아나다가 '아이구, 요 집은 화목한데!'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돈도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상, 돈이라고 생명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까? (탁자를 두드리시며) 이것도 움죽거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그 마음들을 한데 규합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한다면 그 모든 게 무너지면서 쉴 수가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또 그거는 그렇다고 놔두고요, 주인공에다 맡기고,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그렇게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이 공해서 돌아가는 그걸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허공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부처님을 보더라도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과 둘이 아니요, 그 마음 내는 것도 내 마음 내는 거와 둘이 아니니 그거를 둘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위로도 보지 말고 아래로도 보지 말고 똑같이 남이 아픈 거를 내가 아픈 듯이 모든 것을 둘이 아니게 본다면 그것이 자비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사랑 입으로만 외우지 진짜 행을 못 하는 그런, 입에 붙은 밥알처럼 그렇게 사랑 사랑 하지 마십시오. 이론으로는 세 살 먹은 애도 다 부처님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건 팔십을 먹어도 행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그른가요? 열 마디 백 마디 좋은 말을 하는 거보다 한 번 좋은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건 제쳐 놓고,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대두돼 있는 그 자료를, 자료라고 합니다. 누구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못났든 못나지 않았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그거를 막론해 놓고 평등하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재료를. 지수화풍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미생물로서 생해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죽고 살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것을, 우리가 큰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을 크게 끌어야 하고 쪼끄마하면 쪼끄맣게 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력을 쓰듯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끌어서 쓸 수 있다 이 소리죠. 그것이 무엇으로 쓰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오신통, 그 자체가 그 시스템이 다 돌아가면서, 즉 그걸 한 조로 생각한다면 맷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봉을 꽂아야 아래 위가 딱 맞으면서 돌려도 이탈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옵니다. 심봉을 꽂지 않고는 그 맷돌은 이탈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올 수가 없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심봉을 꼭 꽂아라 이겁니다. 즉, 심봉이 주장자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뭉쳐 놔라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거기서 모든 게 생산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헌 쇠는 용광로에다 넣고 또 거기서 넣는 작업만 해도 쇠가 생산이 돼서 그냥 나오듯이 그거를 알면, 즉 말하자면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발전소로 화하죠. 용광로였는데 나중엔 자가발전소가 돼 버렸어. 둘이 아닌 공부를 하는 도리가, 그거 자가발전소로 다시 화했죠.

우리 생활이 공부고 생활이 좌선이고 생활이 참선입니다. 생활 빼놓고 중생들 빼놓고 따로 뭐 남는 게 있다고 부처가 있습니까? 우리 생활이, 그냥 앉고 서고 먹고 자고 똥 누고 이러는 게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여러분 법이에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답디까? 아니, 절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십디까?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여러분이 변소에 있기 때문에 그 부처는 변소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길에 걸어가기 때문에 부처님이 걸어가신다 이거야. 여러분이 안방에 앉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부처를 둘로 본다면 부처님이 49년 설한 게 상당히 허망하게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허망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입니다.

얘길 하다 이리로 꿰어지고 저리로 꿰어집니다마는 잘 이해해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는 동시에 오신통 그 자체에, 아까 맷돌이라고 그랬지만, 그 자체에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과거의 숙명통을 알면서, 이렇게 전부 그게 한데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저 거기에다가, 안 되는 게 있다 이럴 때는 '아하! 이거는 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되게 할 수도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맡긴다. 몸이 아프더라도 30%는 의사의 딴 손을 빌려야 하지만 70%는 우리가 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00%를 의사가 다 못 해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70%는 우리가 충당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위로도 보지 말고 아래로도 보지 말고 똑같이
> 남이 아픈 거를 내가 아픈 듯이
> 모든 것을 둘이 아니게 본다면
> 그것이 자비요 진실한 사랑이다.

여러분이 몸이 괴롭거나 몹시 아프면 의욕이 없어지고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모든 팀들을 같이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조를 한데 합쳐서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주인이자 공했다, 주인공(主人空)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나가 없는 겁니다.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모두가 따로 없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말씀해 드리죠. 우주 천지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살림살이는 천체가 다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돼 있다,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전기 가설 돼 있듯이.

그러니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아유, 저놈 저놈! 왜 저렇게 잘못만 하고,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나, 이러한 짓만 하니.' 하고서 그런 속상한 일이 있걸랑 그 애를, 자고 들어오거나 뭐, 별짓을 다 하고 들어오더라도 평등한 말을 부드럽게 해 주면서 이 주인공에다 맡기세요. 주인공에 맡기면 내 아들이라는 게 가설이 돼 있고 엄마라는 게 가설이 돼 있고 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도 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 현실에 이익하고 서로가 이익하고 내 중생도 이익하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부처도 한자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도모해야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없다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죽어서 천당에 가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나요? 내가 오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그러니까 구덩이에 지금 빠졌다 하더라도 '아, 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내 주인공으로부터 내가 왔으니 내 심부름을 잘못했든 잘했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는다면 누가 구해서라도 구덩이에서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만이 여러분을 이익하게 하고 이끌어 가고 형성시켰고 또 병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통 안에서, 즉 오신통 안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기를 건강하게 해 나갈 수도 있거니와 또 식구들을 기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식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 신도님들이 이 한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고 사람이 돼 가고 애들도 공부를 잘해서 걱정 없게 되고 이렇게 가정이 다복해지는 것은 이 공부하고부터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공부할 겸 몸 건강하게 살 겸, 화목해질 겸 또는 내가 나를 알 겸…. 그것이 뭡니까? 내 몸 없어지면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 못 해요. 그러면 죽어서 또 태어나고 또 죽어서 또다시 태어나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한번 뱀 소굴이나 까치 소굴이나 또는 짐승의 소굴로 잘못 들어가기 아주 쉽죠. 내가 살아서 눈을 못 뜨고 귀를 못 뜨면 죽어서도 그 부부지간에 사는, 살 대고 사는 그것만, 뜻만, 의식만 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굴에나 들어가요. 만약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습이, 그 관념이 박혀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저 기복에 젖고 욕심에 젖고 아상에 젖고 아만에 젖고 '나'라는 데 젖고 아집에 그냥, 하여튼 젖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몸뚱이가 자기라는 거지. 몸뚱이가 뭐가 자깁니까? 운전수가 자기고 몸뚱이가 차예요. 운전수가 끌고 다니는 차란 말입니다. 운전수가 가자고 그래야 일어나지 가자는 말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왜, 이런 게 있죠. 부처님 모셔 놓고 문수 모셔 놓고 보현 모셔 놓고, 삼 불을 모셔 놓죠. 내가 처음에 그거를 볼 때 '아, 저거는 부처님이구나!' 했는데, 생각 내기 이전을 말해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에요, 문수. 생각을 냈다 하면 문수 법신인데 그 생각을 내면 바로 또 몸이 움죽거리거든요. 그게 보현이에요, 보신. 화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자 부처님의 마음이자 부처님의 몸이자 이랬단 말입니다. 움죽거림이다. 그러니까 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심이 일심이니라. 삼심이 일심이니 그 일심으로 도를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마음 내기 이전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내는 게 있고 몸이 움죽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삼심이 일심이고 일심이 온 생활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2월 2일 국외지원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일시호일

장 천공에 협착까지…
병마와 맞선 어린생명의 사투

베트남 출신 뚜안 · 보티캄터 부부 유학생 모임에서 만나 결혼
32주만에 태어난 아들 중환자실…현재 병원비만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